

	보도자료	충남도당
2020년 04월 20일(월)	대변인 : 김 연(010-3355-4074) 담 당 : 김성서 정책부장(010-4903-221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신부더샵 3층 / 041-569-1500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 “대한민국과 충남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것”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충남지역 선거구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20일 오전 10시 30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당선인들은 “충남도민은 더불어민주당에 총선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허락하셨다”면서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성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도민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투표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지지와 기대에 부응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재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라는 도민의 지상명령을 꼭 실행하겠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주신 한 표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충청

남도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교통·산업·문화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끌어내 위대한 충남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21대 국회는 정쟁의 국회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일하는 국회,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가 되겠다. 이러한 국회를 만들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일하겠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일해 충남도민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어기구(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문진석(천안시갑)·박완주(천안시을)·이정문(천안시병)·김종민(논산시계룡시금산군) 당선인이 참석했다. 강훈식(아산시을) 당선인은 최고위원회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했다.

※ 첨부 : 기자회견문 1부,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 사진 4부.